

눈물나게 웃기는 연극

극단 작은신화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

연출 최용훈과 극단 작은신화가 함께 만드는 진지한 웃음바다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는 인간의 탄생과 사랑, 일, 죽음에 관한 4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다. 신비롭고 장중할 수도 있는 이야기는 극중 인물들의 상식 밖의 행동들로 여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관객들은 뜻밖의 반전으로 폭소를 금치 못한다. 그러나 한바탕 웃고 난 다음, 우리는 가슴 한 켠에 웅한 허전함이나

짙한 아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언뜻보면 무대 위의 인물들의 행동은 비정상적인 것 같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어쩌면 우리들 자신이 처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는 한껏 웃으면서도 마음 한 켠으로 애잔함을 느끼게 되는, 채플린의 영화와 닮은 눈물나게 웃기는 연극이다.

공연일시 2004년 2월 5일 - 2월 22일

평일 7:30 / 금, 토 4:30, 7:30 / 일 3:00, 6:00 / 월 공연없음

공연장소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일반 15,000원 / 대학생 12,000원 / 청소년 10,000원 / ♥ 사랑티켓 참가작

공연문의 (02) 764-3380

마치, 수채화 같은 연극 – 극단 차이무 〈양덕원 이야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가족, 직업,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작가 민복기와 예리한 눈으로 사회를 들여다보지만 늘 재미있고 신나는 연극으로 관객에게 다가가는 극단 차이무가 겨우내 꽁꽁 얼었던 모든 이의 가슴을 훈훈하게 덥힐 신작 〈양덕원 이야기〉를 선보인다.
마치 수채화를 보듯 있는 그대로의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고향이란, 부모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연극의 마지막에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겨진 어머니와 텅 빈 채 남겨진, 쓸쓸한 고향집의 모습을 보면서 관객은 '삶 속의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금 담담한 마음으로 곱씹어 보게 될 것이다.

공연일시 2004년 2월 25일(수) – 3월 14일(일)

월 – 목 7:30 / 금 – 일 4:30, 7:30

공연장소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 중고생 10,000원 ♥ 사랑티켓 참가자

공연문의 (02) 762-0810

마로니에미술관 2004년도 첫 번째 기획전

〈이야기하는 벽, Talking to the Wall〉(2004. 2. 10 - 3. 11)



〈루비의 정원〉 안성희 작

- 전시명 | 이야기하는 벽, Talking to the Wall
- 전시개막 | 2004. 2. 10(화), 오후 5시
- 전시기간 | 2004. 2. 10 - 3. 11
- 전시장소 | 마로니에미술관 제 1·2 전시실 및 소갤러리
- 전시관람 | 11:00 a.m - 8:00 p.m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료 | 무료
- 전시설명 | 전시기간 중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 각 1회

참 여 작 가

강선미, 남일, 박은선, 손한샘, 안두진, 안성희, 여계숙,
이제, 임국, 임자혁, 정승운, 허욱

공연 〈소리 퍼포먼스〉

- 일정 | 개막공연 : 2. 10(화) 6:00 p.m
주말공연 : 2. 14(토) 2:00 p.m
- 장소 |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 소갤러리
- 연주자 | 박재천, 여계숙, 임국
- 공연내용 | 실험음악계에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스타일로
인정을 받고있는 여계숙 과 퍼쿠션 연주자
박재천, 베이스 키타리스트 임국의 〈소리
퍼포먼스〉 공연

어린이 미술관 체험 · 참여 프로그램

〈모자이크 벽화〉

- 기간 | 전시기간 중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
- 대상 | 6세 - 10세 (1회 20명 기준)
- 내용 |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설명과
실기수업을 병행함으로써 미술관에 설치된
작품들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느끼고
체험하는 수업
- 참가신청 | 선착순 전화 및 인터넷 접수
(7604-602 / www.kcaf.or.kr)
- 담당 | 허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체험 · 참여
프로그램
〈미술관 벽화〉(추후 별도 공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는 2004년도 첫 자체 기획전으로 <이야기하는 벽, Talking to the Wall>을 마련하였다. 작년 <공원 쉼표 사람들>전에 이어 '공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전시인 <이야기하는 벽, Talking to the Wall>은 지역과 사회에 밀착하기 위해 시작된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논의 과정 속에서 구체화된 전시이다. 지난 번 전시가 미술관이 위치한 외부의 주변환경을 파악하는 전시였다면, <이야기하는 벽>은 시선을 미술관 내부로 돌려 놓는다. 미술관의 물리적 환경, 특히 '벽'을 통해서 현재 미술관이 어떠한 존재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술관 외벽은 바깥의 소란스럽고 탁한 세계로부터 미술을 보호하는 존재로, 그 내벽은 침묵을 유도하며 스스로도 말이 없는 순백의 신성한 성전의 벽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로 인해 미술은 사회적·역사적 맥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세계로 보였다. 그러나 이는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배제시키며 미술의 순수성을 무기로 내세운 한때의 강력한 지배이론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미술이란 사회나 역사와 갖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현상이며, 미술관의 벽은 그것들의 흔적이 끊임없이 덧붙여지는 공간이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벽'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단절의 장'이 아닌 '소통의 장'으로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글자가 없던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동굴 속 벽에 그려 표현했고, 거기서 즐거움과 위안도 얻었다. 시대를 뛰어넘어 20세기 중반 흑인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던 때, 도시벽화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저항 운동이었다. 특히 도시벽화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주민과 미술가 모두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완성해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번 전시에 초대된 작가들은 전통적 매체인 유화에서부터 비디오, 디지털 사진, 사운드, 설치에 이르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침묵하는 하얀색의 폐쇄적인 벽'을 '발화하는 형형색색의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강선미와 박은선은 라인테이프 작업을 통해 벽 위에 환영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저편의 공간을 라인 작업으로 꼬집어낸다. 임자혁은 색색깔의 고무줄로 벽에 드로잉하는데, 전체이미지는 고무줄이라는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매체로서의 벽화개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남일과 이제는 미술관이 위치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작품에 끌어들인다. 안두진과 임국의 경우, 도시벽화의 장난스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안두진의 작품은 마치 담쟁이덩굴이 벽에 뿌리를 박고 그 위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벽 안에서 뛰어나온 이미지들이 벽 위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듯한 화면을 보여준다.

시간의 흔적이 배어 나오는 듯한 벽면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정승운과 손한샘의 작업은 각기 나무와 골판지라는 재료의 질감에 의해 더욱 인상적이다. 허욱과 안성희는 벽에 의해서 형성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허욱은 여러 개의 원통형 상자를 벽에 부착함으로써 '관계의 확장'을 표현한다. 안성희의 경우, 미술관 벽을 개인정원의 담에 비유하며 변화하는 사회적·역사적 상황 속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공간의 안과 밖의 모습을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설명한다. 여계숙의 경우, 단절이나 분리가 아닌 참여와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장르의 섞임을 시도한다. 음악 악보이자 소리그림인 그의 작품은 미술관 안에서 '말하는 벽'·'노래하는 벽'이 된다.

미술과 미술관이 쌓아올린 두터운 장벽을 허물어 대중과 만나고 그들이 주체가 되는 참여의 공간을 제시하고자 한 이번 전시는 전시기간동안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과 참여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시만으로는 부족한 활동들을 보충해 줄 것이다.

더불어 이번 전시는 후속작업으로 지역주민과 미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벽화제작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공원 쉼표 사람들>전에서 이미 마로니에미술관 외벽 일부는 미술가(양주혜)에 의해 거대한 캔버스로 변화되어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술관 벽이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새롭게 꾸며질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미술관으로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이야기하는 벽, Talking to the Wall>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큐레이터 김형미 7604-726, 7604-780)으로 문의하기 바란다.